

農耕 관련 漢字에 반영된 古代中國의 農耕文化

이 인 경*

<목 차>

1. 서론
2. 漢字와 원시사회 농경문화
 - 2.1 採集과 火田耕作
 - 2.2 원시 농기구
 - 2.3 원시 곡류 작물
3. 漢字와 상고시대 농경문화
 - 3.1 '農'에 반영된 과도기적 農耕文化
 - 3.2 '男'에 반영된 부계사회 農耕文化
 - 3.3 '稷'에 반영된 봉건사회 農耕文化
4. 결론

1. 서론

농경 관련 漢字에는 농경문화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중국농업발전의 살아있는 화석이라 할 수 있다. 한자는 중국 문명의 상징으로, 그것에는 풍부한 사회문화적 정보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중국의 농경발전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인식도 짐작할 수 있다. 예로부터 중국은 농업을 국가 입지의 근본으로 삼았던 나라였으므로 농경은 중국문명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농경 관련 한자를 통해 중국 원시농경의 발생과 발전, 그리고 당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 단국대학교 중국어과 강의전담 조교수

농경은 원시인류에게 있어 자연에만 의지해 생활하던 당시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제공하였다.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자연에만 의지했던 생활에서 자연을 개척하고 정복하는 방식, 즉 생산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농경을 통해 원시인류는 자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점차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정착생활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농업 문명은 인류의 사회문화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채집, 어로와 수렵이 주된 생산 활동이었던 원시사회 사람들은 인구증가와 식량부족으로 초래된 사회적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의 생산자원의 출처를 모색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농경은 시작되었다. 최초의 원시농경은 부녀자들의 채집활동과 관계가 있다. 거주지 근처에서 이행되던 오랜 채집활동은 야생식물들을 관찰하고 생장시킬 수 있는 경험과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이로 인해 야생 식물 중 토지에 부합되는 작물의 씨앗을 심고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량이 비교적 높고 품질이 우월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집에서 비롯된 원시농경은 더 많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생산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야생식물의 씨앗을 심는 방식으로부터 시작된 원시농경은 처음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되다가 불과 도구 등을 이용해 경작지를 확대해 재배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원시사회 대표적인 경작 방식 火田 농업은 거주지 주변의 산림과 황무지를 경작지로 개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전보다 넓은 농경지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넓어진 농경지에서의 경작은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위한 농기구 제작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화전은 씨를 뿌린 후 2년이 지나면 땅이 다시 황무지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토지 이용률을 높여 토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땅을 일파간 묵히는 休耕 방식이 도입되었다. 촌락의 형성은 안정된 정착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인 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농경지의 확보는 인류의 사회문화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경작지로 활용할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도랑 등으로 경계가 구분된 농경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일정하게 구획된 농경지에서의 경작은 신체적 노동이 이

전보다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남성은 점차 경작활동의 중심이 되었고, 이로 인해 남성의 사회적 권위가 향상되었다. 원시사회 화전 중심의 경작은 점차 구획 농경지 중심의 경작으로 전환되면서 농경을 통한 생산량은 크게 향상되었는데, 남성은 바로 이와 같은 농경 중심의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산 활동의 주체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고대 중국의 농경문명 발전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원시사회 농경의 경작 방식, 농기구, 농작물과 관련된 한자들을 선별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원시 농경문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고대 중국은 예로부터 농경을 국가 형성의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농경의 발전은 곧 사회문명 발전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농경의 발전과 관련된 한자를 통해 모계에서 부계사회로 전환된 고대 중국의 농경문화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원시농경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농경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원시사회의 경작방식, 농기구, 농작물로 구분해 이와 관련된 한자 ‘采’, ‘焚’, ‘力’, ‘耒와 耜’, ‘禾와 粟’, ‘稻를 농경문명 발전과정과 연계해 古文字 字形, 고고학적 자료 및 문헌 기록들을 참고하여 글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당시의 농경문화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원시 사회에서 상고시대로 발전되는 과정에서의 농경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한자 ‘農’ ‘男’ ‘稷’을 위와 동일한 자료들을 참고해 살펴보고자 한다.¹⁾

1) 본고에서 주로 활용한 한자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說文解字》는 “臧克和·王平 校訂, 《說文解字新訂》(北京, 中華書局, 2002)”을 주로 인용하고, 이외 “(漢)許慎 撰, (清)段玉裁 注,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와 “(清)朱駿聲, 《說文通訓定聲》(北京, 中華書局, 2016)”은 참고하도록 한다. 자형 분석에 참고할 사진으로는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北京, 華夏出版社, 2006)”을 주로 인용하고,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2016)”은 참고하도록 한다. 고문자 자형 그림은 “www.vividict.com 《象形字典》”의 것을 주로 인용하되, 자형 그림의 인용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자료의 자형 그림을 인용하도록 한다.

2. 漢字와 원시사회 농경문화

중국은 예로부터 농경을 국가 입지의 초석으로 삼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농경은 중국 역사문화 발전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농경은 중국에서 가장 빨리 시작된 문명으로, 이것의 기원을 살펴보려면 문자도 없던 원시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중국 최초의 농경은 神農氏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원시농경의 기원을 현재로서는 고고학적 유적과 신화전설을 통해 짐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 신농으로 일컫는가? 옛날 사람들은 모두 날짐승 들짐승의 고기를 날로 먹었다. 신농 시대에 이르자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 그것들의 고기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신농은 하늘의 주기에 따라 토양의 특성을 구분하고 쟁기와 보습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²⁾

원시시대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셨으며 가죽과 털옷을 입었다. 신농씨에 이르러 곤충과 짐승으로 인해 백성을 잘 기를 수 없었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 모든 식물의 과실을 먹어본 후 그 맛을 살폈다. 그리하여 백성들에게 오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었다.³⁾

이것은 神農時代 즉 모계씨족사회 사람들의 사회적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莊子가 이 시대를 언급할 때 “어머니는 알아도 아버지는 몰랐다.”고 한 것으로 보아,⁴⁾ 신농씨는 모계씨족사회의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당시 부족해

2) (清)陳立 撰, 吳則虞 點校, 《白虎通疏證》, 北京, 中華書局, 2007. 《白虎通·號》, “古之人民, 皆食禽獸肉, 至于神農, 人民衆多, 禽獸不足. 於是神農因天之時, 分地之利, 制耒耜, 教民農作.”

3) 陸賈 撰, 《新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新語·道基》, “民人食肉飲血衣皮毛. 至於神農. 以爲行蟲走獸. 難以養民. 乃求可食之物. 嘗百草之實. 察酸苦之味. 教民食五穀.”

4) 陳鼓應 注譯, 《莊子今注今譯》, 北京, 中華書局, 1994. 《莊子·盜跖》, “신농씨 시대에는 누우면 편하고 일어나면 한가로운 생활을 누렸고 사람들은 어머니는 알아도 아버지는 몰

진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 방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까닭에 이후 농경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물론 신화에서처럼 신농씨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농경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신농씨가 신화 속 인물이긴 하지만 신농씨 이야기에는 중국 농경의 기원과 관련된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모계씨족사회가 발전되면서 야기된 인구 증가와 식량부족은 새로운 식량자원의 출처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관찰과 경험을 통해 터득하게 된 당시 사람들의 작물 재배 방법이 신농씨를 빌어 설명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농씨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원시농경은 구석기 말에서 신석기 시대에 이르는 모계씨족사회에 인구 증가로 초래된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새로운 방식의 생산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원시농경의 발생은 부녀자들의 채집활동과 관계가 있다. 농경의 출현이 부녀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은 소수민족들의 풍속과 전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雲南의 芒人是 버를 수확할 때 우선 부녀자들에게 배게한 후 다른 사람들이 수확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지역 孟連의 佧族들도 새로운 곡식을 먹는 의식이 있을 때 노부인이 먼저 시식을 한 후에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식사하는 풍습이 있었다.⁵⁾ 이런 풍속은 농경의 발생이 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채집은 구석기 시대부터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이행되었던 생산 활동이므로, 장기간에 걸친 활동은 어떤 식물들의 생장 규칙을 자연스럽게 인식케 하여 식물의 생장조건과 생산 등에 대해 깨닫게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농경은 씨뿌리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채집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된 새로운 식물 재배 방식으로, 부녀자를 중심으로 이행되었다. 雲南 獨龍族은 야생 버의 씨를 草地에 흩어 심은 후 나중에 그 땅에서 풀을 뽑아냈다고 한다. 씨를 뿌린 후 농작물 생장에 영향을 끼치는 잡초를 제거하는 정도의 작업은 가장 원시적 형태의 경작 방식으로,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園藝耕作이라 한다.⁶⁾ 여러 종류의 씨를 한꺼번에 심거나 한

랐으며, 사슴 따위 동물들과 함께 살고 밭을 갈아 먹으며 옷감을 짜 옷을 지어 입었다.(神農之世, 臥則居居, 起則於於, 民知其母, 不知其父, 與麋鹿共處, 耕而食, 織而衣.)”

5) 宋兆麟·黎家芳·杜耀西, 《中國原始社會史》, 北京, 文物出版社, 1983. 130쪽 참조.

가지만을 심는 방식 등 농경 발생 초기의 다양한 재배방식의 시도는 이후 토지에 재배하기 적합한 작물과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 주었다. 五穀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고대 중국의 대표적인 곡류 작물이라 할 수 있다. 거주 지역 부근이나 기타 채집지역에서 부녀자들의 생산 활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초 농경을 통한 생산량은 매우 적었다.

농경이 사회의 주된 생계수단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조건은 농경지의 확보였다. 때문에 원시 사회 사람들은 산림과 황무지를 이용해 농경지로 개간해 사용하였다. 火田 농업은 비교적 오래된 경작 방식으로, 여기에는 樹木을 베거나 草木을 불태운 후 조성된 경작지에 씨를 뿌리고 잘 자라도록 관리해 수확하는 과정까지가 포함된다. 넓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주변의 산비탈이나 강 주변의 숲 같은 곳을 개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농경지 개간과 경작활동을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원시 농기구 제작과 경작의 공동체 작업은 바로 이전보다 힘들어진 작업환경에서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불을 이용한 화전경작은 넓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의 하나이지만 땅을 뒤집는 등의 인위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 땅의 비옥도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는 쉽게 굳어질 수밖에 없었다. 화전은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고 2년이 지나면 황무지로 변해버리기에 그곳에서는 다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거처를 옮겨 가며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해 활용하였다. 안정된 식량 생산은 토지의 이용률을 높여 지속적으로 경작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기존의 화전 방식에 땅을 뒤집는 등 인위적 작업을 병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토지의 질이 변화되어 지속적인 경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休耕이란 땅을 뒤집는 작업을 통해 토지를 변화시키고 정기적으로 경작을 쉬고 거름을 주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재배 방식을 말한다. 땅을 뒤집는 용도로 제작된 耒와 耜 등의 원시 농기구는 바로 이와 같은 경작 활동의 편리함을 위해 제작된 도구들로, 이와 같은 토질 개량 용도의 농기구들은 화전경작의 발전과

6) 宋兆麟·黎家芳·杜耀西, 위의 책, 131쪽 참조.

정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기존의 화전에 耒와 耜 같은 농기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토질을 변화시켜 활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작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전경작은 농기구의 발전을 초래해 耜耕과 공동 작업으로 진행된 耦耕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채집에서 씨뿌리기 방식의 경작, 그리고 화전경작으로 발전한 원시사회 농경은 이후 넓은 평원에서 진행된 구획 농경지 경작의 기초로서, 이것은 중국의 농경문명과 사회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다음에서는 경작방식, 농기구와 농작물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漢字를 통해 원시사회 농경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採集과 火田耕作

중국의 원시농경은 신석기 시대에 이미 시작되어 농경을 통한 생산은 사회경제의 일정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채집, 어로와 수렵은 여전히 사회생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시사회에서 채집은 부녀자를 중심으로, 어로와 수렵은 남성을 중심으로 이행되었다. 씨뿌리기 방식으로 진행된 최초의 농경은 자연의 식물 등에 대한 채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채집활동을 대표하는 漢字 ‘采’와 불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경작지를 조성해 그곳에서 생산 활동을 했던 火田耕作을 대표하는 한자 ‘熨’를 통해 원시 사회의 농경문화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2.1.1 採集과 ‘采’

농경이 시작되기 전 원시사회 사람들은 자연에 의지해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채집은 구석기 시대부터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이행되었던 생산 활동이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채집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 식물들

의 생장 규칙은 자연스럽게 어떤 식물의 생장조건과 재배 방식 등을 점차 깨닫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시사회 부녀자를 중심으로 이행되었던 채집활동은 중국 원시농경의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古文字 '采' 字形에는 원시사회 당시의 채집활동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 甲骨文 '采'



前5.6

㉡ 金文 '采'



南宮中鼎

위 ㉠과 ㉡의 자형 모습은 유사하다. 이들 자형은 모두 상하 부분이 手와 木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의 알갱이 모양은 나무에 맺힌 열매로, 손을 사용해 나무 열매를 따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에서는 알갱이 모양만 생략되어 있을 뿐, 이 역시 나무의 잎이나 열매를 따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說文解字》에서 采는 “뺏아서(따서) 취한다는 뜻이다. 木과 爪로 구성되어 있다.”라 하였다.⁸⁾ 구석기와 신석기 중기에 이르는 모계씨족사회의 주된 식량자원은 채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초기 磁山文化와 仰韶文化 지역에서는 당시의 생산 활동을 짐작케 하는 호두, 박달나무 씨, 밤, 솔 등과 야생벌꿀이나 식물의 뿌리 등이 발견되었다.⁹⁾ 과일이나 식물의 씨앗을 중심으로 출토된 유물 등은 채집을 통해 얻은 식량으로 추정되므로, 本義가 ‘뺏다’ 또는 ‘따다’인 한자 采에는 원시사회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채집은 주로 부녀자가 담당하였다. 鄂倫春族 남성들은 봄에 사냥을 하고 여성들은 가을에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채집을 하러 갔다고 한다.¹⁰⁾ 모계씨족사

7)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北京, 華夏出版社, 2006, 375쪽. “甲骨文從爪(覆手), 從木上有果形, 會以手采摘樹上的果實之意。金文省去果實。”

8) 臧克和·王平 校訂, 《說文解字新訂》, 北京, 中華書局, 2002. 《說文解字·木》, “采, 揀取也。從木從爪。”

9) 劉志成, 《文化文字學》, 成都, 巴蜀書社, 2003. 278쪽 참조.

회에서는 채집과 어로 및 수렵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지위가 높았던 까닭에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도 기존의 생산 활동은 병행되며 사회 경제를 뒷받침하였다. 농경의 발생과 발전은 사람들의 정착생활을 유도하였고, 농경은 다시 이것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오랜 채집활동을 통해 인지하게 된 식물생장의 규칙을 참고하여 당시 사람들은 수확을 위해 인위적인 행위를 더하게 되는데, 그것이 최초의 경작활동이다. 씨뿌리기 방식으로 시작된 원시 농경은 어느 정도의 생산은 가능하게 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씨를 뿌리는 땅이 거주 지역 부근 혹은 기타 채집지역에서 진행되었을 것이고, 씨를 뿌리는 방식도 아직 원시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잡초만 제거하던 원시적 경작 방식은 토지에 적합한 작물을 깨닫고, 토지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변화 발전하였다. 원시농경의 대표적인 농작물 조와 벼도 이런 과정을 통해 재배가 가능해진 곡류 작물들이다. 사람들이 자연으로부터 얻게 된 씨앗을 일부러 땅에 뿌려 재배해 키우면서 발전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전경작과 농경지 경작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씨뿌리기 방식의 최초 농경은 원시 사회 부녀자들의 채집활동과 관계가 있다. 채집은 원시농경의 초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采’에는 바로 이와 관련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2 火田耕作과 ‘焚’

漢字 ‘焚’에는 화전경작과 관련된 문화정보가 함축되어 있다. 《說文解字》에 따르면 焚은 “불태워 농경지를 개간하디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¹¹⁾ 불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경작지를 조성했던 당시의 농경문화가 焚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시사회 사람들은 경작지를 만드는데 왜 불을 사용했던

10) 劉志成, 위의 책, 279쪽 참조.

11) 《說文解字·火》, “焚, 燒田也.”

것일까? “사람들이 식물을 소멸시키는 것은 비워진 땅 위에 五穀을 파종하기 위해서였다...이런 방식이어야 수확을 몇 배로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한 앵겔스의 말을 참고하면 원시사회 새로운 경작방식에 있어 불의 용도를 짐작할 수 있다.¹²⁾ 비워진 넓은 땅은 많은 생산량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원시 시절 수풀이 없는 빈 땅을 찾기란 쉽지 않아 토지를 개간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은 樹木과 풀을 한꺼번에 없애고 빈 땅을 확보하려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화전경작은 불을 이용해 개간한 경작지에서의 농경이기 때문에 씨뿌리기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형태의 경작방식이라 할 수 있다.

화전경작과 불의 관계는 炎帝 神農氏의 이름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신농씨를 염제로 칭하는 것은 불과 원시농경이 관계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左傳·昭公17》에서 “염제는 불을 관장하는 관리였기 때문에 火師라 하였는데, 이것은 불과 관련된 이름이다.”라 하였으니 이것은 염제와 불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¹³⁾ 불꽃을 의미하는 ‘炎’을 신농씨의 별칭으로 사용한 것 역시 불과 농경이 밀접한 관계임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이런 사실들을 통해 화전경작이 원시농경의 대표적인 경작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헌을 통해서도 원시사회 화전경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鹽鐵論·通有》에 따르면 “나무를 베고 곡식을 심고, 풀에 불을 질러 조의 씨앗을 뿌린다. 화전에서 경작하고 물을 대고 잡초를 제거한다.”라고 하였으니,¹⁴⁾ 이것은 화전의 경작 방식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불태우다’ 뜻의 ‘焚’에는 화전경작과 관련된 원시사회 농경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古文字 ‘焚’ 字形은 林과 火로 구성되어 있어, 이것은 불로 숲을 태우는

12) 宋兆麟·黎家芳·杜耀西, 앞의 책, 133쪽 재인용. 恩格思, 《自然辯證法》, 人民出版社, 1972, 157쪽. “人消滅植物, 是爲了在這塊騰出來的土地上播種五穀……因爲他們知道這樣可以得到多倍播種。”

13)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標點本)春秋左傳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左傳·昭公17》, “炎帝氏以火紀, 故爲火師而火名。”

14) 馬非百 注釋, 《鹽鐵論》, 北京, 中華書局, 1984. 《鹽鐵論·通有》, “伐木而樹穀, 燔萊而播粟, 火耕而水耨。”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甲骨文 '焚'



京津1437

甲骨文 '焚'



乙29

위 자형 焚의 구성 중 火 이외의 부분을 林 대신 木이나 艸라 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林, 木, 艸는 모두 산림이나 황무지의 초목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형의 本義에는 큰 차이가 없다. 焚의 왼쪽 자형은 윗부분을 풀, 아랫부분을 불로 보고, 이것의 본의를 땅을 개간해 경작할 때 불로 황무지와 들판의 초목을 태운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¹⁵⁾ 오른쪽 자형은 윗부분을 숲, 아래 부분을 손으로 불을 잡고 있는 모양으로 보아 불로 초목을 불태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하였다.¹⁶⁾ 원시사회에서 숲에 불을 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인위적인 경작지 조성이고 다른 하나는 대규모의 사냥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¹⁷⁾ 숲을 불로 태우고 짐승을 몰아 사냥을 하고 나면 땅은 비옥해져 그곳에서 경작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을 놓는 사냥터는 화전경작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농사짓는 것과 사냥은 분명 다른 일이지만 '불태우기(焚)'를 통해 얻은 결과라는 점은 결국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고문헌에서 '田'은 '사냥'과 '전답'의 의미로 겸용되었다.¹⁸⁾ 그러므로 田에는 바로 '焚'과 관련된 원시사회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화전경작의 초기 시기에는 비교적 높은 산비탈 위의 수목을 칼로 벤 후 불을

15) www.vividict.com 《象形字典》, <焚>, “表示古人墾地耕作而引火燒荒草野林。”
 16)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686쪽. “甲骨文上爲樹林, 下邊是手持火把, 會火燒草木之意。”
 17) 何九盈·胡雙寶·張猛, 《中國漢字文化大觀》,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339쪽 참조.
 18) 賀立敏, <甲骨文에 나타난 商代의 農業文化 考察>,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12쪽. 갑골복사에 사용된 田을 예로 들며, 이때의 田은 사냥하디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했다. 何九盈 등도 《中國漢字文化大觀》에서 田은 사냥과 농경지의 의미로 겸용되었다고 했다.(何九盈·胡雙寶·張猛, 위의 책, 339쪽 참조)

농아 경작지를 만들고 작물을 재배하는 단순한 방식이었다면 보습 등의 농기구를 사용해 경작하는 耜耕과 休耕이 화전방식에 더해지면서 토지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商代까지도 토지 개발을 통한 사냥터와 농경지 개간은 지속적으로 이행되었다. 주변의 초목을 없애고 경작지를 개간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전히 불을 이용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화전의 경작방식은 장기간에 걸쳐 생산 활동에 활용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焚'에는 화전경작과 관련된 원시사회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원시 농기구

火田耕作의 진일보된 형태가 耜耕이다. 불을 놓아 만든 경작지에서 땅을 파 씨를 뿌리고 자연 그대로 방치한 후 작물을 수확하는 것이 화전 경작이라면, 사경은 토지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땅 뒤집는 용도의 농기구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땅을 가는 방식으로 경작하는 것이다. 耒와 耜는 전적으로 땅을 뒤집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手足並用的 토지 삼입용 농기구로, 耒, 耜의 사용을 통해 중국의 원시농경은 커다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농기구의 사용은 경작방식 뿐 아니라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이래로 중국의 원시농경은 농기구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무 재질의 耒耜(쟁기)는 先秦시기 발같이 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농기구이다.¹⁹⁾ 耒와 耜는 원래 농기구의 개별 명칭이었다가 이후 耒耜로 함께 指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耒와 耜의 명칭에는 원시 농경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耒와 耜가 개별 명칭이었던 사실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河姆渡 유적의 骨耜, 裴李崗, 磁山 유적 등지의 石耜 등과 같이 비교적 이른 시기의 신석기 유물들을 통해 화전경작이 일정 비중을 차지했을 당시에 이미 耜耕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기

19) 李根蟠, 《中國古代農業》, 深圳, 天津教育出版社, 1991. 12쪽 참조.

때문이다.²⁰⁾

耒耜의 바탕이 된 耒와 耜와 같은 원시 농기구는 원시 농경문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끝이 뾰족한 나무막대기는 耒와 耜의 이용에 앞서 씨뿌리기 작업 때 사용하였던 원시 농기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이들 원시 농기구와 관련된 漢字 ‘力’, ‘耒’와 ‘耜’를 통해 당시의 농경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2.1 ‘力’

원시 농기구 중 하나인 끝이 뾰족한 나무막대기(尖木棒)는 일찍이 채집활동 때 사용되었던 생산도구로서, 이것은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도 활용되었다. 원시사회 씨뿌리기 재배를 할 때 땅을 찢러 구멍을 낸 후 씨뿌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뾰족 나무막대기는 씨뿌리기에 앞서 구멍 만들기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원시 농기구였다고 할 수 있다.²¹⁾

뾰족한 나무 막대기는 끝이 구부러진 형태로 조금 변형되어 땅을 뒤집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古文字 ‘力’의 字形은 이와 같은 원시 농기구의 모습과 유사하다.

㉠ 甲骨文 ‘力’



Z8893

甲骨文 ‘力’



Z4517

㉡ 金文 ‘力’



中山王壺

20) 宋兆麟·黎家芳·杜耀西, 앞의 책, 133쪽 참조.

21) 宋兆麟·黎家芳·杜耀西, 위의 책, 135-136쪽 참조. 여기에서는 獨龍族과 黎族, 佉族의 예를 들어 두 가지 방식으로 이행된 씨 뿌리기 재배를 설명했다. 한 가지는 씨를 땅에 묻지 않고 흩어 뿌린 후 자연 그대로 방치 또는 흙을 조금 덮어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구를 사용해 땅을 찢은 후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 중 뾰족 나무 막대기를 사용해 點穴播種 방식으로 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학 자료를 참고해 설명했다.

㉑의 力 자형들은 땅을 갈 때 사용한 굽정이(耒)를 형상화한 것이다.²²⁾ 뼈대를 이루는 긴 선은 끝이 조금 휘어있지만 곧은 형태의 선에 가깝다. 아랫부분의 옆선은 도구에 부착한 횡목으로 이 부분은 작업의 편리를 위해 발로 밟을 수 있도록 고안된 부분이다. 갑골 力 자형을 굽정이 耒의 모습으로 설명한 이유는 두 글자의 고문자 형태가 유사할 뿐 아니라 두 도구의 활용이 같기 때문이다. 力과 耒 이외의 耜도 땅을 뒤집을 때 사용한 원시 농기구로 이것들은 모두 뽕족 나무막대기로부터 비롯된 도구들이다. 뽕족 나무막대기가 최초 농경 당시 씨뿌리기에 앞서 땅에 구멍을 낼 때 사용한 비교적 간단한 도구였다면 力, 耒와 耜 등은 쉽게 땅을 뒤집을 수 있도록 제작한 도구였기 때문에 기존의 도구에 다소의 가공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㉒의 力 자형은 좀 더 구체화된 농기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갑골문의 力이 당시 사용되었던 농기구를 형상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本義가 원시 농기구 耒인 고문자 力의 자형에는 경작활동과 관련된 원시 사회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력을 땅 뒤집는 용도의 농기구라 한다면 “力은 힘줄을 뜻한다. 사람의 힘줄이 움직이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한 《說文解字》의 풀이는 그 본의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²³⁾ 于省吾는 갑골문 男의 구성 중 偏旁에 위치한 力과 耒 자형이 유사하므로 이것들을 하나의 도구로 보았고,²⁴⁾ 徐中舒는 力의 갑골 자형을 “원시 농기구 굽정이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그는 力이 농기구 耒의 형태의 농기구인 까닭에 이로부터 그 의미가 확장되어 “굽정을 사용해 경작하는 데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引伸하여 氣力의 力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라 설명하였다.²⁵⁾ 그러니까 耒를 형상화 한 원시 농기구 力이 경작활동에 필요한 힘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氣力을 뜻하는 力으로

22)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12쪽. “像犁地的耒形。金文更顯示出起土之狀。”

23) 《說文解字·力》, “力, 筋也, 象人筋之形。”

24) 王平, 《大衆文藝》, <“男”字構件>, 2016. 212쪽 참조.

25)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 成都, 四川辭書出版社, 2016. 1478쪽. “象原始農具之耒形。殆以耒耕作須有力, 故引申爲氣力之力。”

인신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力에 대한 許慎의 풀이는 그 본의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力이 3개가 합쳐진 형태의 ‘𠂔’ 자형을 통해서도 力의 본의를 확인할 수 있다. 갑골문에서 𠂔은 3개의 굽정이기 함께 경작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²⁶⁾ 《설문해자》에서도 “𠂔은 힘을 합한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원시 경작 방식 중 耦耕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西藏 門巴族은 땅을 갈 때 둘 혹은 세 사람이 뾰족 나무막대기를 나란히 잡고 동시에 땅을 뒤엎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작 방식을 耦耕이라 한다. 그러므로 𠂔에는 땅을 뒤집기 위해 굽정기를 나란히 잡고 공동 작업을 하던 耦耕의 모습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力’ 자형들은 땅 뒤집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가장 원시적 형태의 도구를 형상화 한 것인데, 이후 耒와 耜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의 형태로 力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땅 뒤집는 용도로 사용된 원시 농기구, 즉 수족병용의 토지 삼입용 농기구 耒의 형태가 고문자 力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자형의 力은 땅 뒤집는 용도로 사용된 농기구들 중 가장 원시적 형태라 할 수 있으므로, 氣力을 뜻하는 力은 본의 원시 농기구 耒에서 인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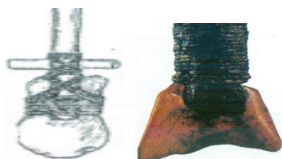
2.2.2 ‘耒’와 ‘耜’

원래 별개의 농기구였던 耒(굽정기)와 耜(보습)는 漢代 이후 한 농기구의 두 부분에 대한 명칭으로 부르게 되었다. 耜는 하단 부분을 耒는 상단의 자루 부분을 칭하므로 이것은 원래부터 동일한 농기구에 대한 명칭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 기록을 통해서도 耒와 耜는 각각 개별 명칭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아래 그림들은 모두 신석기 시대 자료들로,

26)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235쪽. “像三耒並耕形, 會合力同耕之意。”

27) 최덕경, 《中國古代農業史研究》, 서울, 백산서당, 1994, 71-72쪽 참조. 耒耜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사회발전에 따른 농기구의 발전 등을 고려해 본다면 용도는 같지만 원래

耒와 耜가 개별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單齒木耒와 雙齒木耒²⁸⁾그림2) 石耜와 骨耜²⁹⁾

耒의 형태는 單齒와 雙齒로 구분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쪽에 횡목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고 한다.³⁰⁾ 그림1)의 왼쪽은 西藏 門巴族의 青岡杖이 單齒木耒, 오른쪽은 雙齒木耒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림2)는 石耜와 骨耜로 왼쪽의 耒보다 땅에 닿는 부분이 다소 넓은 형태로 되어 있다. 명칭과 그 형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耒와 耜는 모두 원래 뾰족 나무막대기 형태에서 발전된 원시 농기구로, 이것들은 모두 땅 뒤집기 작업의 편리를 위해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夏小正經文校釋》에서는 “정월에 농민은 耒를 수리하여 耒에게 제사를 올렸다.”고 하였고,³¹⁾ 《淮南子·汜論訓》에서는 “예전에는 날카로운 耜를 사용해서 밭을 갈았다.”고 하였으니,³²⁾ 이를 통해서도 耒와 耜는 모두 경작활동에 사용

서로 다른 농기구였던 耒와 耜는 철제농기구의 보급과 토지 이용도가 증대와 함께 명칭에도 변화가 생겼다. 땅 뒤집기에 더 유용한 耜가 더욱 중시되면서 칼날 부분의 폭이 넓은 耜가 땅에 닿는 부분에 대한 명칭으로, 耒는 단지 손잡이 부분을 일컫게 되었다. 그러니까 耒와 耜는 사회문명의 발전 과정과 함께 점차 동일한 농기구의 두 부분에 대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경향은 漢代이후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28) 宋兆麟·黎家芳·杜耀西, 앞의 책, 單齒木耒는 133쪽, 雙齒木耒는 254쪽.

29) 石耜는 宋兆麟 등의 《中國原始社會史》 134쪽, 骨耜는 李根蟠의 《中國古代農業》 서문 앞쪽의 컬러 사진.

30) 宋兆麟·黎家芳·杜耀西, 앞의 책, 134쪽 참조.

31) 夏緯瑛, 《夏小正經文校釋》, 農業出版社, 1981. 5쪽. “農緯厥耒, 初歲祭耒.”

32) 趙宗乙, 《淮南子譯注》,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2004. 《淮南子·汜論訓》, “古者剡耜而耕.”

되었던 고대 중국의 중요한 농기구로서, 이것들은 원래 개별적인 농구에 대한 지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석기 시대에 이미 雙齒形 木耒의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耒의 형태는 古文字 字形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 갑골 자형을 보면 가로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는데,³³⁾ 이것은 횡목의 有無를 나타낸 것으로 위 그림 자료와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횡목의 부착은 땅을 파낼 때 발을 딛는 방식으로 작업의 편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자형 윗부분에는 수가 첨가되어있어, 이로부터耒가 手足並用的 토지 삽입용 도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耒의 갑골 자형을 “끝이 갈라진 보습 모양이다.”라고 한 것은 쌍치형耒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⁴⁾ 劉志成은 쌍치되는 단치퇴에서 발전된 형태라 하였다.耒란 원래 끝이 날카로운 나무 막대기로, 그 아래 부분에 횡목을 동여매 그곳을 밟아 쉽게 땅 속에 들어가게 한 후 손으로 윗부분을 누르는 방식으로 흙을 뒤집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농기구였기 때문이다. 제작초기의 木耒의 경우 그것이 단치이든 쌍치이든 그 형태와는 관계없이 재료가 나무이다 보니 보존이 어려워 실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출토된耒와 관련된 자료는 河南 三門峽 廟底溝와 殷墟 등지의 쌍치퇴의 흔적들이다.³⁵⁾ 이들 자료들이 龍山文化 초기 유적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신석기 이후에는 쌍치퇴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초기耒의 형태인 단치퇴는 앞에서 살펴본 力의 형태와 유사하다. 땅에 닿는 부분이 뾰족한 부분은 단치 형태라 할 수 있고,

33) 徐中舒, <耒耜考>, 《農業考古》1期, 1983. 66쪽. 위耒의 자형은 <耒耜考>에서 재인용.

34)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157쪽. “甲骨文像犁形。”

35) 劉志成, 앞의 책, 285쪽 참조.

횡목을 부착한 것도 있다고 했으니 이것은 力의 고문자 자형과 그 모습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耒를 力에서 발전된 형태 혹은 力의 고문자 자형을 원시 농기구 耒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치뢰에서 발전된 쌍치뢰는 땅 뒤집기 작업의 효용성과 관계된 것이다. 이로 인해 일정 시기 이후 쌍치뢰를 주로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끝이 갈라진 보습 모양”이 耒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설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耒와 耜는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그 字義가 변화되었다. 쟁기(耒耜)는 땅 뒤집기 용도를 위해 제작된 농기구로, 쟁기의 출현은 경작방식을 크게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周易·繫辭》에서

포희씨 시대가 지나고, 신농씨 시대가 되었다. 나무를 패고 깎아서 쟁기의 하단 부분 耜를 만들고, 나무를 휘어 굽은 손잡이의 쟁기의 상단 부분 耒를 만들었다. 이런 농기구로 땅을 갈 때의 장점은 그것을 사용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³⁶⁾

라 한 것은 耒와 耜를 별도의 도구가 아닌 하나의 농기구로 파악한 것이다. 耒耜라는 하나의 농기구의 두 부분, 즉 耒와 耜 부분의 제작 방법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耒耜를 하나의 농기구로 보아 땅에 닿는 부분 耜는 날이 예리해야 땅을 뒤집기에 편리함으로 “나무를 패고 깎다.”라 한 것이고, 상단 부분 耒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 하므로 나무를 휘어 만든다고 한 것이다. 京房은 이에 대해 耜는 耒 아래 보습(耒)이고, 耒는 耜 위의 굽은 나무라고 설명하였으니,³⁷⁾ 위 본문의 耒耜는 한 도구의 두 부분에 대한 명칭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說文解字》에서 耒를 “밭갈 때 쓰는 굽은 나무를 말한다.”라 한 것도 耒를 농기구의 일부분으로 보고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⁸⁾

36) 黃壽祺·張善文 撰, 《十三經譯注周易譯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周易·繫辭》, “包犧氏沒, 神農氏作, 斲木爲耜, 揉木爲耒, 耒耨之利, 以教天下。”

37) 黃壽祺·張善文 撰, 위의 책, 534쪽. 《釋文》京房의 말을 인용하여, “耒下耒也.”, “耜上句木也.”로 설명했다.

後漢 이후부터 耒耜는 合稱하여 하나의 농기구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³⁹⁾ 이것은 별개의 농기구였던 耒와 耜가 한 농기구의 두 부분에 대한 명칭으로 그 의미가 변화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管子·海王》에서는 “농사짓는 사람은 반드시 耒 하나, 耜 하나, 鋤(호미) 하나가 갖추어져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라 하여 耒耜를 별개의 농기구로 파악하였고,⁴⁰⁾ 《管子·國蓄》에서는 “봄에는 농사를 짓고, 여름에는 김을 맨다. 농기구, 씨앗, 양식은 모두 나라에서 넉넉하게 공급한다.”라고 하여 耒耜를 농기구의 총칭으로 사용하고 있다.⁴¹⁾ 戰國시대에서 漢代초기의 저작으로 추정되는 《관자》에 耒와 耜는 별도 또는 耒耜로 合稱하여 농기구의 총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耒와 耜는 《관자》의 저술시기를 전후하여 기능상, 형태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그 명칭까지 변화되어, 농기구의 총칭 耒耜로 쓰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원시 곡류 작물

黃河와 長江 유역은 중국의 농경 발상지로, 조와 벼는 이 두 지역을 대표하는 곡류 작물이다. 黃土高原과 黃河 중하류 대평원 교차지 일대의 裴李崗·磁山文化(7000~8000년 전) 유적을 통해 황하유역이 중국의 최초 농경 발생지임이 알려졌는데, 그 중 磁山 유적에서는 조를 저장했던 88개의 땅굴이 발견되어, 조가 이 지역의 주요작물이었음이 증명되었다.⁴²⁾ 장강 유역 지역인 浙江 余姚 河姆渡文化(약 7000년) 유적에서는 벼, 벧짚, 겨의 퇴적물이 발견되어 이 지역에서는 일찍이 벼를 재배하고 있었음이 증명되었다.⁴³⁾ 이런 고고학적 자

38) 《說文解字·耒》, “手耕曲木也。”

39) 최덕경, 앞의 책, 78쪽.

40) 黎翔鳳 撰, 《管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6. 《管子·海王》, “耕者必有一耒一耜一鋤, 若其事立。”

41) 《管子·國蓄》, “春以奉耕, 夏以奉芸 耒耜器械鍾饁糧食必取贍於君。”

42) 李根蟠, 앞의 책, 5-6쪽 참조.

료를 통해 황하와 장강 유역은 신석기 초기에 씨앗 뿌리기 방식의 원시농경이 이미 상당히 발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는 강아지풀로부터 사람들의 손에 의해 개량된 농작물로 황하유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商周시기에 이르는 동안 중국 전역에 걸쳐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었다.⁴⁴⁾ 벼는 百越系민족에 의해 야생 벼에서 개량된 작물로, 원시사회 말기에는 황하, 渭水 남쪽 연안과 그 보다 조금 위쪽 지역까지 재배지역이 확대되어 당시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자원이 되었다.⁴⁵⁾

중국의 북방과 남방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농작물인 조와 벼는 농경 발상지인 황하와 장강 유역에서 재배된 최초의 농작물로, 이것들은 원시사회에서上古시대에 이르는 동안 중국 전역의 주된 식량자원이 되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이들 농작물과 관련된 漢字 ‘禾’와 ‘粟’, ‘稻’를 통해 당시의 농경문화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2.3.1 ‘禾’와 ‘粟’

‘禾’와 ‘粟’, 그리고 ‘稷’은 모두 ‘조’를 칭하는 漢字이다. 때문에 이들 글자에는 조가 신석기 시대로부터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재배되며 주요 농작물로 보편화된 당시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현재 ‘벼’, ‘조’, ‘곡식’의 의미로 사용되

43) 李根蟠, 앞의 책, 8쪽 참조.

44) 기장(黍)은 조 이외에 황하 중심의 북방지역을 대표하는 농작물로, 조와 마찬가지로 생장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이 지역 기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장은 생장환경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았던 까닭에 새로 개간한 토지에 처음 심는 대표적인 농작물로 재배되며 상고시대까지 북부와 서부지역의 주요 식량자원이 되었다. 하지만 춘추전국시대 이후 개간 토지가 줄어들면서, 식량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하락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장 부분은 생략한다.

45) 李根蟠, 앞의 책, 20쪽 참조. 또 宋兆麟 등은 벼는 雲南 고원지역 사람들이 야생 벼를 길러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라 했다. 벼는 운남에서 기원하여 동남아와 인도로 전해졌다고도 하고, 운남과 인도의 아삼(Assam)지역에서 기원했다는 설도 있는데, 두 가지 기원 모두 벼 재배의 기원을 중국에 두고 있다. (宋兆麟·黎家芳·杜耀西, 앞의 책, 137쪽 참조). 장강 이남에서 베트남에 이르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백월계 민족이고, 그들과 운남 지역 사람들은 모두 장강 이남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므로 이근반과 송조린 등의 의견을 모두 참고할 만하다.

고 있는 이들 한자들의 本義는 모두 ‘조’로, 원시농경 당시의 곡류 작물을 이들 한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조’의 뜻에서 ‘곡식’ 혹은 ‘곡식 신’으로引伸된 稷은 다음 장 社稷과 관련된 농경문화 부분에서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禾와 粟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古文字 ‘禾’ 자형은 뿌리, 줄기, 잎을 모두 갖춘 다 자란 곡식이 이삭을 드리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⁴⁶⁾

㉠ 甲骨文 ‘禾’



乙4867

金文 ‘禾’



郝公鐘

㉡ 甲骨文 ‘粟’



佚563

㉠의 두 자형의 모습은 유사하다. 윗부분은 아래로 드리워진 이삭, 아랫부분은 뿌리 그리고 중간 부분은 중심을 유지해주는 식물의 줄기를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禾는 뿌리, 줄기, 잎을 제대로 갖춘 농작물의 모습이라한 것이다. 위 고문자 풀이에서는 다 자란 곡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을 뿐 五穀 중 어떤 곡류를 형상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⁴⁷⁾ 그렇다면 禾는 어떤 농작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일까?

곡류 조를 대표하는 또 다른 글자 ㉡ ‘粟’의 갑골 자형을 살펴보면 禾와 그 모습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 갑골문 粟은 ㉠ 자형에 알갱이 같은 것이 더해진 모양인데, 이 알갱이 모양은 일반적으로 낱알이 나와 있는 조로 풀이된다.⁴⁸⁾ 《說文解字》에서 禾는 “아주 좋은 곡물을 말한다.”⁴⁹⁾ 粟은 “아주 좋은 곡물의 열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⁵⁰⁾ 粟은 곧 禾의 껍질 벗긴 낱알이라

46)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125쪽. “甲骨文像一棵莖葉根俱全而成熟的禾谷垂穗形。”

47) 신농씨 신화전설에 五穀의 존재는 이미 등장했을 뿐 아니라 고고학적 유적을 통해서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형이 다 자란 곡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원시 농작물 五穀 중 하나를 나타냈을 것이다.

48)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685쪽, “甲骨文從禾, 旁邊有米粒形, 表示能出米的穀子。”

49) 《說文解字·禾》, “禾, 嘉穀也。”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를 칭할 때 그 껍질 벗긴 것을 ‘小米(좁쌀)’, 점성이 있는 것은 ‘秬(차조)’, 우수한 품질의 조는 ‘粱’이라 하였다.⁵¹⁾ 조와 관련된 명칭에 따르면 껍질 벗긴 좁쌀 小米가 곧粟이고, 許慎도 이에 대해 “아주 좋은 곡물(禾)의 열매”라 풀이했으니, 위 禾 자형은 다 자란 조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허신은 또 “미란粟의 열매로, 이것은禾의 열매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⁵²⁾ 《漢字源流字典》에서粟의 갑골 자형을 “出米的穀子”라 하였으니, 이것은 “남알이 나와 있는 조”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위 禾와粟의 고문자는 모두 곡류 조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헌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馬瑞辰은 《詩經·邶風·十月》의 ‘조와 삼과 콩과 보리(禾麻菽麥)’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禾가 좋은 품질의 조(粱)를 가리킨 것이라고 하였다.⁵³⁾ 戴侗도 ‘禾麻菽麥’을 “북방 지역은 육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농작물 중 좋은 품종의 조가 많이 재배되었기 때문에 이때의 품질 좋은 조를禾란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⁵⁴⁾ 그러므로 ①의 禾 자형은 다 익어 이삭을 드리운 조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②의 粟은 조 이삭에 남알이 가득 달려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禾와粟이 두 고문자에 대한 유지성의 견해도 이와 비슷하다. 그는 사람들이 기르는 조와 야생 조를 개괄한 것이 禾의 本義이고, 이후 사람들이 기르는 조만을 가리켜 粟이라 한다고 하였다.⁵⁵⁾ 그러므로 한자 ‘禾’와 ‘粟’에는 상고시대 대표적인 곡류 작물이며 식량자원이었던 조와 관련된 당시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禾는 본의 ‘조’에서 이후 곡류 농작물의 총칭으로 引伸되었다.

50) 《說文解字·鹵》, “粟, 嘉穀實也。”

51) 李根蟠, 앞의 책, 20쪽 참조.

52) 《說文解字·米》, “米, 粟實也。象禾實之形。”

53) (清)馬瑞辰, 《十三經清人注疏 毛詩傳箋通釋》, 北京, 中華書局, 2008. 466쪽 참조. 《詩經·邶風》의 ‘10월에 곡식 쌓아 올리네. ……조와 삼과 콩과 보리(十月納禾稼, ……禾麻菽麥)’부분을 《說文解字》의 禾, 粟, 米, 粱에 대한 풀이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설명했다.

54) 馬瑞辰, 위의 책, 466쪽 재인용. 戴侗, 《六書故》, “北方多六土, 其穀多粱粟, 故粱粟專以禾稱。”

55) 劉志成, 앞의 책, 284쪽 참조.

- ㉠ 봄에 곡식(粟)의 씨를 뿌려야, 가을에 많은 식량을 거둘 수 있을진대, 심지도 거두지도 못했거늘, 어찌 300塵의 곡식(禾) 거두어 가는가?⁵⁶⁾
- ㉡ 해가 머리 위에 뜨도록 농작물(禾)의 김을 매니, 땀이 흘러내려 땅으로 떨어지는구나.⁵⁷⁾

위 문헌 ㉠과 ㉡ 구절의 禾는 모두 농작물의 총칭으로 사용되었고, ㉠의 粟도 곡류를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듯 조를 대표하는 고문자 禾와 粟이 곡류 농작물의 총칭으로 사용된 것은 원시농경이 발전함에 따라 재배지역이 확대되면서 그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된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 다른 농작물에 비해 성장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던 조는 반건조 기후 지역에서도 일찍이 재배가 가능하였고, 이후 황하를 중심으로 河北, 河南, 山西, 山東, 甘肅, 青海 등의 각 성과 동북 遼寧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생산이 확대되어 고대 중국 북방지역의 주된 농작물이 되었기 때문이다.⁵⁸⁾ 그러다 보니 조의 고유명사로 사용되었던 禾는 곡식의 총칭으로 인신되어, 種(씨, 심다), 稞(보리), 秉(벼단), 穆(올벼), 穠(밭 갈다) 등과 같이 농작물 또는 농경과 관련된 한자 造字에 활용되었다.

황하 유역 신석기 유적을 중심으로 출토된 탄화된 조의 흔적을 통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원시 농작물 중 하나가 ‘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당시의 농경문화는 ‘禾’와 ‘粟’의 고문자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원래 다 익어 이삭을 드리운 곡류 조의 모습은 禾로, 이삭 껍질이 벗겨진 낱알은 粟로 구분되었다. 이후 재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는 여러 지역의 대표 농작물로 그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禾의 의미도 변해 곡류 작물의 총칭으로 인신되었고, 粟은 고문자 禾와 稷 대신 조를 대표하는 글자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 역시 곡류 작물의 총칭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禾’와 ‘粟’에는 조를 가장 중요한 농작

56) 《詩經·魏風·伐檀》, “不稼不穡, 胡取禾三百塵兮。”

57) <http://www.gudaishiwen.com/mingju/ju7937.html> 李紳, <憫農>, “春種一粒粟, 秋成萬顆子。鋤禾日當午, 汗低禾下土。”, “粟, 泛指穀類。”, “禾, 穀類植物之統稱。”라 하여 粟과 禾의 의미가 모두 곡류를 뜻하는 것이라 했다.

58) 宋兆麟·黎家芳·杜耀西, 262쪽 참조.

물로 인식하였던 고대 중국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2.3.2 ‘稻’

벼는 조와 함께 중국 원시농경을 대표하는 곡류 작물이다. 벼는 長江 유역 중심의 신석기 시대 유적 여러 곳에서 이미 그 흔적이 발견되었다. 최초 벼와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浙江 河姆渡 유적을 비롯하여 太湖와 江蘇 남부 지역 여러 곳에서도 炭化된 벼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므로, 장강 중하류를 중심으로 이 일대는 벼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유적에서 발견된 벼의 흔적들을 연구해 본 결과, 출토된 벼의 대부분이 秈稻와 粳稻와 같은 메벼였다고 한다.⁵⁹⁾ 따라서 출토된 메벼의 흔적으로 짐작컨대 벼 재배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다.⁶⁰⁾ 야생 벼로부터 사람들에게 의해 인위적으로 재배되어 개량된 것들 중 하나가 메벼이기 때문이다.

《說文解字》에서 “稻는 메벼를 뜻한다. 禾에서 뜻을 취하고 舂에서 소리를 취한다.”라고 하였다.⁶¹⁾ 벼의 한 종류인 메벼는 논벼(물이 있는 상태에서 재배하는 벼로 籼벼와 구분됨)에 속한다. 논벼는 고대 중국에서 재배된 원시 곡류 작물 중 하나인데, 그 기원을 야생 벼에서 찾을 수 있다. 《설문해자》에서 “금년에 稻가 떨어진 후 다음 해에 자생한 벼를 일컬어 秠라 한다.”⁶²⁾고 하였으니, 자생한 야생 벼(秠)가 사람들에게 의해 재배된 후 논벼의 한 종류 메벼(稻)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許慎은 稻를 禾와 舂로 이루어진 형성자로 풀이한 데 비해, 稻는 古文字에서 會意字로 풀이된다.

59) 劉志成, 앞의 책, 282쪽 참조.

60) 최근 출토된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벼 재배는 7000년 河姆渡 문화지역보다 앞선 10000여 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 역시 메벼 흔적의 발견과 관련이 있다. 본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유적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한다.

61) 《說文解字·禾》, “稻, 稌也。從禾舂聲。”

62) 《說文解字·禾》, “秠, 稻今季落, 來季自生謂之秠。”

㉠ 甲骨文 '稻'



佚400

㉡ 金文 '稻'



史免匡

㉠ 자형의 아래쪽 부분은 낱알을 절구에 담아 찡는 모습이고 위쪽 부분은 키질을 해 겨를 날리고 있는 모습으로, 이것은 낱알을 절구질한 후 겨를 날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다.⁶³⁾ 또 ㉠ 자형을 절구질 해 얻은 쌀을 그릇에 담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한다.⁶⁴⁾ ㉡의 金文 자형의 위쪽은 禾, 가운데 부분은 손, 그 아래쪽은 절구와 낱알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것은 낱알을 절구에 담아 찡는 모습으로, 이것은 절구질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쌀을 형상화한 것이다.⁶⁵⁾ 위 고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쌀을 식량으로 삼았기 때문에 벼의 낱알을 찡는 모습으로 稻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허신의 풀이처럼 자형상의 稻가 반드시 메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야생 벼가 이미 사람들에게 의해 재배되어 식량이 되었음은 자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朱駿聲은 《說文通訓定聲》에서 “오늘날 蘇 지역 사람들은 찰진 것과 찰지지 않은 것을 통칭해 稻라 한다. 하지만 옛날에서는 찰진 것을 稻, 찰지지 않은 것은 秠이라 하였다. 또 그들은 벧짚에서 겨를 분리하지 않은 것을 稻, 稻에서 벧짚을 분리한 것을 穀이라 하였다. 穀에서 겨를 분리한 것을 米라 하는데, 이것을 북방 사람들은 南米, 혹은 大米라 하였다. 옛날에는 穀과 米를 모두 稻라고도 한다.”고 하였다.⁶⁶⁾ 이것은 벼에 대한 매우 구체화된 설명

63) www.vividict.com 《象形字典》, <稻>, “上部用簸箕揚糠, 下部春米的石槽, 表示將穀子春搗後, 再簸箕揚糠。”

64)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815쪽, “稻, 會意字。甲骨文是將收穫春搗好的稻子放進器中之意。”

65)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815쪽, “金文改爲從禾, 右邊伸手從臼中取米形, 表示是稻穀。因爲稻子是要春搗的。”

66) (清)朱駿聲, 《說文通訓定聲》, 北京, 中華書局, 2016. “今蘇俗, 凡粘者不粘者, 統謂之稻。古則以粘者曰稻, 不粘者曰秠。又蘇人凡未離稈去糠曰稻, 稻既離稈曰穀。穀既去糠曰米。北人謂之南米, 大米。古則穀米亦皆曰稻。”

으로, 이에 따르면 ㉠과 ㉡의 자형 풀이와는 달리 벼짚에서 겨를 분리하지 않을 것을 稻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예전에는 벼짚과 겨를 분리한 穀과 米도 稻라 한다고 했으니, 稻에 대한 고문자와 허신의 풀이는 모두 벼 재배와 관련된 적절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메벼를 뜻하는 한자 '稻'에는 수확한 벼를 주된 식량자원으로 이용하였던 고대 중국인의 인식과 농경문화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시사회에서 상고시대에 이르기까지 벼는 조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곡류작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메벼는 야생 벼가 사람들에 의해 재배되며 발전된 논벼의 한 종류이며, 고고학적 유적을 통해 중국에서는 신석기 시대 초기에 이미 메벼의 재배가 시작되어 당시 사람들의 식량으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漢字와 상고시대 농경문화

모계씨족사회 말기부터 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 남녀의 사회적 지위가 변화되었다. 부녀자 중심의 씨뿌리기 방식으로부터 시작된 원시농경이 火田耕作, 休耕과 호미와 보습 등 다양한 농기구를 이용하는 耜耕 방식으로 발전되면서 농경지는 점차 고정되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다. 화전 경작 대신 토지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된 耜耕은 농작물의 생산량을 크게 향상시켜 식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도랑으로 구분된 구획 농경지에서의 경작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확장된 경작지에서의 작물 재배를 통해 식량공급이 안정되면서 어로와 수렵을 위주로 했던 남성의 생산 활동은 농경 쪽으로 전환되었고, 이로부터 농업생산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黃河 중상류 산언덕이나 고원에서 시작된 원시농경은 원시사회 말기에 하류의 평원지역으로 사람들의 주거지가 전환되면서 생산 활동도 변화되었다. 비

옥한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는 황하 하류 지역은 기후도 건조하지 않고 토양도 습윤한 편이라 이전보다 농사짓기에 유리한 환경이었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량의 증가와 황하의 범람은 排水 문제를 초래해 경작활동에 제약 요인이 되었다. 경작지의 수로라 할 수 있는 도랑은 이런 환경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것은 이후 구획 농경지의 표준이 되었다. 상고시대 井田도 바로 도랑을 토대로 구획된 농경지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원시사회 말기에 경작지 사이 수로로 구분되는 농경지가 만들어져 이것을 통한 생산량이 향상되면서 잔여 농작물과 私有재산의 개념이 생겼다. 원시사회 말기에서 상고 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는 사회생산력의 중심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시키면서 남성의 사회적 권위는 크게 향상되었다. 토지개간, 耒와 耜 같은 농기구를 이용한 땅 뒤집기, 도랑 건설과 넓은 농경지에서의 경작 등은 모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남성은 이와 같은 생산 활동에서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남성의 사회적 지위는 농경문명의 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농경문명의 변화와 발전은 중국 사회문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상고시대 농경은 도랑을 기준으로 구획된 농경지 경작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화전 등의 원시경작에서 耜耕, 그리고 도랑 중심의 구획 농경지 경작으로 발전된 당시의 농경문화와 사람들의 인식을 漢字 ‘農’, ‘男’, ‘稷’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3.1 ‘農’에 반영된 과도기적 農耕文化

‘農’에는 구획 농경지 중심의 경작활동에 앞서 산림을 불태워 인위적으로 조성한 경작지에서 耒와 耜 등의 농기구를 사용해 농사를 짓던 당시의 과도기적 농경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說文解字》에서 “農은 경작하디의 뜻이다. 義符 農와 聲符 囟으로 구성되어 있다. 農은 籀文 農인데, 林을 구성요소로 한다.……農도 古文字 農이다.”라

고 하였다.⁶⁷⁾ 그러니까 農은 農의 籀文, 즉 農의 書體 중 하나이고, 耨은 고문자에서 農의 의미로 사용된 異體字라는 뜻이다. 許慎이 분석한 農의 성부 凶은 篆文이후 田이 訛變된 것이라 한다.⁶⁸⁾ 古文字 字形을 통해서도 訛變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자형들을 살펴보면 ㉠과 달리 ㉡의 자형에서는 윗부분에 田이 첨가되었고, ㉢에서는 田의 자리를 凶이 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에서 ㉡, 다시 ㉢으로 자형이 변화되면서 農의 서체가 완성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당시의 농경문화를 짐작해볼 수 있다. 農에 대한 자형분석은 그 견해가 다양하지만, 그 本義는 모두 농경과 관련된 의미로 설명된다.

고문자 農은 대개 辰과 林으로 이루어진 글자로 풀이된다. 우선 異體字 耨의 모습과 유사한 ㉠의 자형들은 윗부분은 풀숲, 아랫부분은 호미를 들고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므로, 이것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⁶⁹⁾ 이 때 자형에서 풀숲을 나타낸 윗부분이 林, 호미로 들고 있는 辰에 해당된다. 특히 맨 아래쪽 부분에 수가 더해져 있는 ㉠의 오른쪽 자형은 호미를 들고 작업하는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자형 윗부분에는 왜 田이 첨가된 것일까? 이것은 무성한 숲을 불태워 경작지로 개간해 사용하였던 당시의 농경문화와 관계가 있다. 원시농경의 주요 장소가 산비탈이나 언덕이었을 때나 평원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후에도 개간하기에 가장 적절한 땅은 주변의 풀숲이었을 것이고, 원시농경에 있어 화전

67) 《說文解字·農》, “農, 耕也。從農聲凶。農, 籀文農從林。……耨, 亦古文農。”

68)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229쪽. “篆文整齊化, 將田訛變凶聲。”

69) www.vividict.com 《象形字典》, <農>, “上部草叢, 下部持鋤勞作。表示鋤草墾荒。”

은 인위적 토지 개간에 있어 가장 유용한 방식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풀숲을 불태워 농지를 조성하고, 그곳에서 경작활동을 했던 당시의 농경문화가 자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에서 田이 윗부분에 첨가된 것은 임야를 개간해 만든 농경지를 더욱 강조하여 그곳에서 이루어진 경작활동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⁷⁰⁾ 이와 같은 설명에 따르면 경작지 개간을 위한 벌목이 강조된 것이 ㉠의 자형이라면 임야를 벌목한 후 농지가 강조된 田이 첨가된 ㉡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 田은 언급했듯이 ‘농경지’ 이외 ‘사냥’의 뜻으로도 사용되었으므로, ㉡의 田을 사냥의 의미로 풀이하더라도 역시 원시 화전경작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田이 농경지와 사냥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불을 이용해 수목을 태워버렸던 원시사회의 생산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원시사회에서 산림의 수목을 불태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규모로 사냥하기에 앞서 불을 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작지 조성을 위해 불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냥을 위해 불 태워진 장소는 사냥이 끝난 후 경작지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田이 사냥과 농경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불로 태워진 사냥터는 곧 화전을 뜻하는 것이므로 ㉡의 田은 화전경작과 관계가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 자형과도 그 의미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耨이 農의 이체자인 것도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들 글자에는 당시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辰은 대합조개로 만든 농기구를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⁷¹⁾ 조개 껍질은 원시 농기구의 재료 중 하나였기 때문에 辰이 대합조개로 한다면 이것은 당시 농경에 사용했던 도구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시 농경에서는 일찍이 돌과 뼈 이외에 대합조개껍질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 말기의 유적 도처에서 패총이 발견되었을 뿐 아니라,⁷²⁾ 江西 仙人洞 유적에서는 김매기 용도의 갈아

70) www.vividict.com 《象形字典》, <農>, “表示在林野伐木鋤草墾荒耕种。”

71) 劉志成, 앞의 책, 286쪽 참조. 辰은 대합조개로 김을 매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것은 바로 원시 농기구를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72) 宋兆麟·黎家芳·杜耀西, 앞의 책, 148쪽 참조.

만든 구멍이 둘 있는 민물조개껍질과 수확용의 구멍 하나 있는 대합조개 껍질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⁷³⁾ “옛날에는 대합조개를 갈아서 김을 맬 수 있었다.”라고 한 문헌 기록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⁷⁴⁾ 그러므로 辰을 대합조개로 만든 농기구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한 것은 원시농경 당시의 상황을 참고해 풀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辰을 굽병이로 보고 갑골문 農을 두 손으로 굽병이 또는 林을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 즉 밭에서 벌레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⁷⁵⁾ 이와 같이 풀이한다면 辰은 원시농경 당시의 농지 관리 방식과 관계가 있다. 원시농경 시기에는 씨를 뿌린 후 수확까지 그 과정이 간단하여 경작지 관리가 비교적 단순하였다. 수확을 위해 잡초 제거를 위한 김매기 작업 외에 당시 사람들이 한 일은 새를 쫓거나 울타리를 쳐 鳥獸의 침입을 막고 몰아내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農을 ‘밭에서 벌레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한 것은 조수를 비롯한 해충을 제거했던 원시사회 경작지 관리 방식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農의 구성요소 중 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그것이 조개껍질로 만든 농기구이든 벌레이든 간에 모두 씨를 뿌린 후 수확을 얻기까지 이행했던 경작과정 중의 한 작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農’에는 원시사회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農’ 자형을 통해 산림을 불태워 인위적으로 조성한 농지에서 도구를 사용해 농사를 짓던 당시의 농경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농경이 주로 강가 인접 지역 중심의 평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고고학자들의 최근 2,30년 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최초의 농경은 산지 또는 고원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화전으로 농지를 확보했던 당시의 방식을 생각한다면 학자들의 연구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불로 태울만한 넓은 땅이 필요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주거지 주변의 산언덕은 가장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였을 것이기

73) 劉志成, 앞의 책, 286쪽 참조.

74) 《淮南子·汜論訓》, “古者磨蜃而耨。”

75)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229쪽. “甲骨文從雙手持辰(鱗鱉), 或從辰, 從林(代表植物), 皆會田中除蟲之意。”

때문이다. 農의 본의가 산림을 개간한 농지에서 원시 농기구를 사용해 경작하는 모습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당시의 과도기적 농경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문해자》에서 ‘경작하다’라 한 것은 漢代에 이미 보편화된 농지 중심의 경작활동을 바탕으로 農을 풀이한 것으로, 이후 農은 농민, 농사, 농사 짓다 등으로 引伸되었다. 그러므로 화전 등의 원시농경에서 농기구와 농지 경작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었던 당시의 과도기적 경작활동과 이에 따른 농경문화가 ‘農’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男’에 반영된 부계사회 農耕文化

漢字 ‘男’에는 상고시대 농경문명의 발전과 남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에 대한 문화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說文解字》에서 “男은 장성한 남자를 뜻한다.”고 하였으니,⁷⁶⁾ 이것은 부녀 女의 상대글자 男을 지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남자가 밭에서 힘을 쓴다는 것을 뜻한다.”고 한 것은 농경지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곧 남성이라는 뜻이므로,⁷⁷⁾ 男에는 남성이 경작활동의 주체가 되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男이 처음부터 남성을 대표하는 지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부녀자로부터 시작된 원시농경은 경작방식의 변화와 발전이 거듭되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생산 활동의 주체가 전환되었다. 때문에 남성을 경작활동의 중심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은 상고시대 부계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풀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男을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한 許慎의 풀이는 ‘바깥일은 남성, 집안 일은 여성’이 담당한다는 부계사회의 사회적 상황, 즉 漢代 당시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古文字 ‘男’도 田과 力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통해서도 당시의 농경문화를

76) 《說文解字·男》, “男, 丈夫也。”

77) 《說文解字·男》, “言男子用力於田也。”

살펴볼 수 있다. 고문자에서 男 자형은 경작활동 모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女에 대한 남성의 지칭이라기보다는 농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㉑ 甲骨文 '男'



鐵1.32

㉒ 金文 '男'



矢方彝

㉑과 ㉒ 자형 모두 田과 力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랫부분 力은 농기구 耒, 윗부분은 田은 농경지를 나타내므로, 이것은 농기구를 들고 농경지에서 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 자형에서 男은 그저 농경지에서 경작활동을 하던 농민, 또는 경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뿐 그 성별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男의 구성요소인 力과 田은 농경의 필수요소인 농기구와 농경지를 형상화한 것이다.⁷⁸⁾ 농경의 필수요건 중 하나인 농경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시농경 당시 사람들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땅을 개간하여 사용하였다. 田에는 토지개간 농경지에 관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㉓ 甲骨文 '田'



粹1222

㉔ 甲骨文 '田'



後上21

㉓에서 田은 가로 세로로 가지런하게 구분해 놓은 농경지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⁷⁹⁾ ㉑과 ㉒에서 공통으로 살펴볼 수 있는 '田' 속 격자 모양은 농지에

78) 원시 농기구 '力'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79) 穀衍奎 編, 《漢字源流字典》, 117쪽. “甲骨文像分割整齊的田塊形。”

나 있는 두렁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⁸⁰⁾ ㉠의 경우 가로 세로 선의 개수가 ㉠보다 더 많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개의 선으로 구분되어 나뉜 井田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⁸¹⁾ 《설문해자》에서도 “田은 가지런하게 진열하
다의 뜻이다. 곡식을 심는 곳을 田이라 한다. 4개의 □과 十은 사방으로 나 있
는 도랑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⁸²⁾ 고문자 田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유사하
다. 농경지를 구분하기 위해 울타리를 두르고, 가로 세로로 도랑을 파서 사이
를 갈라놓은 모습을 田이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⁸³⁾ 이와 같은 설명은 원
시농경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위 자형과 같은 구획 농경지의 모습은
원시사회에서 상고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최초 인위
적인 농경지는 화전 방식으로 조성된 것이고, 개간된 농경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耒와 耜 같은 농기구를 활용하며 원시농경은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고대 중국인들은 원시사회 말기부터 황하 하류의 넓은 평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환경적 요소로 인해 경작활동과 직결된 배수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농경문명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농경지 사
이의 도랑은 개간 토지를 구획하는 경계선이 되었을 뿐 아니라 논밭 사이에
물이 고이지 않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해주어 배수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商代 甲骨卜辭의 기록에 따르면 농경지 개간 방식이 두 가지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먼저 불로 수목이나 잡풀을 태워버리고 평평
하고 경작하기 적합한 땅을 선택해 가장자리 사방에 사각 형태로 울타리나 도
랑을 만들고, 그 가운데를 종횡 十 모양으로 도랑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최초
의 개간 농경지였다고 한다.⁸⁴⁾ 다시 말해 농경지 확보를 위해 화전 방식을 이
용해 경작에 편리하도록 도랑을 파 구획을 정하고, 거기에 상하 좌우로 도랑을
만든 후 그곳을 농경지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듯이 田에는 원시 화전경작에서

80) www.vividict.com 《象形字典》, <田>, “豎線代表縱向田埂, 橫線代表橫向田埂。”

81) www.vividict.com 《象形字典》, <田>, “表示阡陌縱橫的無數井田。”

82) 《說文解字·田》, “田, 陳也。樹穀曰田。象四口; 十, 阡陌之制也。”

83) 劉志成, 앞의 책, 290쪽 참조.

84) 賀立敏, 앞 논문, 35쪽 참조.

구획 농경지 경작으로 발전하던 당시의 과도기적 농경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의 틀 안에 가로 세로 여러 개로 표시된 선을 ‘井田’을 나타낸 것이라 풀이한 것은 구획 농경지 경작으로 전환되면서 실시된 당시의 농경문화, 즉 厦商周 시대에 걸쳐 시행되었던 井田制를 근거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전제란 농지를 井에 따라 9등분하여 8戶의 농가가 한 구역씩 경작하고 중앙에는 公田을 두어 공동 경작하여 이곳에서의 수확물을 세금으로 내는 토지제도이다. 때문에 위 자형의 중횡으로 구분된 선은 도랑으로 농경지를 일정하게 구분하였던 당시의 경작 모습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시사회에서 상고시대로 발전하면서 사회의 주된 생산 활동이 된 농경은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원시농경에 비해 구획 농경지에서의 경작은 이전보다 신체적 노동이 훨씬 많이 필요한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남성의 사회적 권위의 향상은 경작활동의 주체가 되었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농경문명의 변화와 발전은 곧 모계에서 부계사회 전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男’을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라 한 것은 부계사회의 농경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고시대는 농경 중심의 부계사회였기에, 남성은 농경지에서 농사짓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 남성을 대표하는 통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 ‘稷’에 반영된 봉건사회 農耕文化

토지와 식량은 의식주를 비롯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고대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토지를 숭배하며 ‘社’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이 때 ‘社’는 토지 신을 가리킨다. 신석기 시대 가장 큰 경제적 변화가 농경의 발생이다. 농경의 시작과 더불어 곡식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稷’에는 바로 이와 같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중원지역에서 경작의 역사가 가장 오래 되었으며, 원시농경 중기 이후 북방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대중화된 식량이 ‘조(粟)’였다. 때문에 조는 일찍이 五穀 중 으뜸으로 숭배되었다.⁸⁵⁾ ‘稷’은 粟의 別稱으로,⁸⁶⁾ 이것은 이후 農官 또는 穀神(곡식 신)으로 불려졌다. 《說文解字》에서 稷은 “五穀의 으뜸이다. 義符 禾와 聲符 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였다.⁸⁷⁾ 《爾雅正義》에 따르면 《설문해자》에서 稷을 ‘오곡의 으뜸’이라 한 것은 처음 재배한 농작물이라 하여 그것을 으뜸(長)이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⁸⁸⁾ 원래 곡류 조에 대한 지칭이었던 稷은 이후 고대 농사를 주관하는 農官, 또 百穀의 신인 곡식 신의 뜻으로引伸되었는데, 이것은 곡식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관계가 있다.

古文字 ‘稷’ 字形을 통해서도 농경과 관련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 甲骨文 ‘稷’⁸⁹⁾



前二、三二、五

㉡ 篆文 ‘稷’



說文解字

篆文 ‘稷’



籀文

㉠ 자형의 稷은 禾와 畀으로 이루어진 글자라 한다.⁹⁰⁾ 稷이란 ‘百穀의 신’으로 칭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禾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풍년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 오른쪽 자형은 ㉠ 자형으로부터 발전된 형태로, 이것 역시 禾와 畀으로 이루어진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畀 부분은 이후 訛變되어 稷이 된 것이라 한다.⁹¹⁾ 禾와 畀의 결합

85) 劉志成, 앞의 책, 281쪽 참조.

86) 李根蟠, 앞의 책, 20쪽.

87) 《說文解字·禾》, “五穀之長。從禾畀聲。”

88) (清)邵晉涵 撰, 《爾雅正義》, 北京, 中華書局, 2017. “所謂‘五穀之長’, 以先種爲長也。”

89) 劉志成, 앞의 책, 279쪽, ‘稷’ 갑골 자형.

90) 劉志成, 위의 책, 279쪽 참조.

91) 暴希明, <漢字構形中所見上古農耕文化>, 《語文知識》 第2期, 2008. 75쪽 참조. 이와 같은 자형 분석은 稷의 갑골문 자형으로부터 진행된 것으로, 그 구체적인 형태는 본문 ㉡의

이 稷이라면 위 자형(㉠과 ㉡의 오른쪽)은 禾를 대상으로 제사 드리며 축도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祝은 祝의 本字로, 《설문해자》에 따르면 祝은 “제사를 주관할 때 신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을 뜻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⁹²⁾ ㉡의 왼쪽 자형은 稷의 本字 ‘粟’을 나타낸 것으로, 이것은 농경지에서 뒤로 물러나며 두 손으로 모종을 심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럴 경우 禾가 더해진 ㉡의 오른쪽 자형은 모종을 심는 모습이 더욱 강조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⁹³⁾ 稷이 禾에 대한 제사 드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禾(禾)가 중국의 원시 농경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농작물로서 제사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稷이 인신되어 오곡의 으뜸으로 곡식 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粟으로부터의 풀이는 원시농경 당시의 모습을 강조하여 농지에서 경작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稷이라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곡류 작물에 대한 지칭이 아니므로 禾의 별칭이었던 稷의 본의와는 차이가 있다. 이럴 경우 농경지 경작을 중시하던 당시의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곡류를 대표하는 禾를 더해 稷이 농관이나 곡식 신으로 인신된 것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고문자 稷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들은 모두 고대 중국의 농경문화와 관계가 있지만, 稷의 본의는 곡물을 받들어 숭배하는 모습, 즉 禾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며 축도하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시농경 당시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대표적인 농작물 禾(稷)는 제사의 대상이 되었기에 ‘오곡의 으뜸’으로 받아들여져 이후 곡식 신으로 숭배되었다. 《漢書·郊祀志》에서 “고조10년 관리가 각 현에 이르기를 매년 봄 2월과 겨울 12월에는 양과 돼지로 稷에 대한 제사를 지내라 하였다.”라 하였으니,⁹⁴⁾ 이것은 稷이 곡식 신으로 숭배되었음을 말한다. 고대 중국에서 곡

오른쪽 자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劉志成도 祝 부분은 祝變된 것이라 했다.(劉志成, 앞의 책, 281쪽 참조)

92) 《說文解字·示》, “祝, 祭主贊詞者。”

93) www.vividict.com 《象形字典》, <稷>, “‘粟’是‘稷’的本字。……表示農夫在水田里雙手一邊插秧, 一邊双脚後退。……再加禾, 強調插秧。”

94) 班固 撰, 顏師古 注,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7. 《漢書·郊祀志》, “古祖十年春, 有司請令縣常以春二月及臘祠稷以羊彘。”

식 신으로 섬겨진 대상은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炎帝의 아들 柱이고 다른 한 명은 周나라 시조 棄이다. 탁월한 농작물 재배 능력과 그 공적으로 인해 그들은 모두 '稷'이라 命名되며 이후 곡식 신이 되었다.⁹⁵⁾ 고대 중국인들은 천지 만물은 모두 그것에 상응되는 신령이 주재한다고 여겨 백곡은 곡신 신에 의해 주관된다고 여겨, 곡신 신에 대한 숭배를 통해 풍요로운 수확을 얻고자 하였다. 崩龍族은 농작물의 수확을 위해 토지 신과 곡신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농작물은 토지신이 선사하는 은혜라 여겼을 뿐 아니라 농작물에도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昆明의 彝族도 봄에 神樹를 세워 地母神에게 제사를 지내고, 가을 추수 때에는 오곡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⁹⁶⁾ 그러므로 '사직'에는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토지 신과 곡신 신에게 드렸던 고대 중국인들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대지가 아니면 서 있을 수 없고, 곡식이 아니면 먹을 수 없다. 대지는 넓고 멀리 걸쳐 있어 빠짐없이 경의를 나타낼 수 없다. 곡식도 너무 많고 많아 하나하나 전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에 땅을 돋우어 社를 세워 토지 신이 존재를 나타냈다. 稷은 오곡의 으뜸으로 숭배되었으므로 稷의 제단을 세워 그에게 제사를 지냈다.⁹⁷⁾

여기서 社는 토지 신, 稷은 곡식 신을 말한다. 고대 중국인에게 있어 토지와 식량은 국가 입지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역대 제왕들은 나라를 세울 때 반드시 사직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때문에 사직은 곧 '국가'의 별칭이라 할 수 있다. 《墨子》에서 “무릇 오곡이란 백성들이 우러르는 귀한 것이다.”라고 했듯이,⁹⁸⁾ 곡신 신에 대한 숭배와 이에 대한 제사에는 농경을 통한 식량

95) 《漢書·郊祀志》, “열산씨(炎帝)가 천하를 다스렸을 때 그의 아들 柱는 백곡을 재배할 수 있었기에 그가 죽은 후 곡신의 사당에 모셨다. 때문에 사직에서 제사지내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有烈山氏王天下, 其子曰柱, 能殖百谷, 死爲稷祠。故郊祀社稷, 所從來尙矣。)”

96) 劉志成, 앞의 책, 333쪽 참조.

97) 《白虎通·社稷》, “人非土不立, 非穀不食。土地廣博, 不可偏敬也。五穀衆多, 不可一一而祭也。故封土立社, 示有土地。稷, 五穀之長, 故立稷而祭之也。”

98) 吳毓江 撰, 孫啓治 點校, 《墨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6. 《墨子·七患》, “凡五穀者,

생산을 중시하였던 고대 봉건사회 중국인들의 문화적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稷’은 중국 북방 지역의 대표적인 곡물이며 가장 중요한 식량자원이었던 ‘조’의 별칭이다. 이것은 ‘오곡 중 으뜸’이라 할 수 있기에 이후 농관과 곡식 신으로 그 의미가 인신되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발전된 문명이 농경이었고, 고대 중국은 이것을 기반으로 나라를 발전시켰다. 때문에 국가의 대명사인 ‘社稷’에는 봉건사회 고대 중국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문화의 상징부호라 할 수 있는 농경 관련 漢字를 통해 중국 원시 농경의 발생과 발전, 그리고 당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을 이해해보았다.

채집에서 씨뿌리기 방식의 경작, 그리고 화전경작으로 발전한 원시사회 농경은 이후 넓은 평원에서 진행된 구획 농경지 경작의 기초로서, 이것은 중국의 농경문명과 사회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원시사회의 경작방식, 농기구, 농작물로 구분해 이와 관련된 漢字 ‘采’, ‘焚’, ‘力’, ‘耒와 耜’, ‘禾와 粟’, ‘稻’를 농경문명 발전과정과 연계해 古文字 字形, 고고학적 자료 및 문헌 기록들을 통해 당시의 농경문화를 이해해보았다.

古文字 ‘采’ 字形에는 원시 사회 당시의 채집활동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手와 木으로 구성되어 있는 采는 나무의 잎이나 열매를 따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일이나 식물의 씨앗을 중심으로 출토된 유물 등은 채집을 통해 얻은 식량으로 추정되므로, 本義가 ‘따다’인 한자 ‘采’에는 원시 사회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씨뿌리기 방식의 최초 농경은 원시 사회 부녀자들의 채집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采’에는 원시 농

경의 초석인 채집과 관련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漢字 ‘焚’에는 화전 경작과 관련된 문화정보가 함축되어 있다. 《說文解字》에 따르면 焚은 “불태워 농경지를 개간하디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불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경작지를 조성했던 당시의 농경문화가 焚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불태우다’ 뜻의 ‘焚’에는 화전 경작과 관련된 원시사회 농경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古文字 ‘焚’ 자형은 林과 火로 구성되어 있어, 이것은 불로 숲을 태우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쟁기(耒耜)의 사용은 고대 중국의 농경문명을 크게 진작시켰다. 쟁기와 같은 농기구의 사용은 토질을 인위적으로 개량시켜 토지 이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耒와 耜는 쟁기 제작에 앞서 이용되었던 땅 뒤집기 용도의 원시 농기구로, 이것들은 중국의 농경문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원시사회 채집활동 때부터 사용된 뽕족 나무막대기는 耒와 耜의 형태와 용도의 바탕이 된 원시 농기구다. 씨뿌리기 방식의 농경에서 뽕족 나무 막대기는 땅을 자극해 구멍을 내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후 끝이 조금 구부러진 형태로 변형된 뽕족 나무막대기는 땅 뒤집은 용도로 활용되었다. ‘力’의 자형은 바로 이와 같은 땅 뒤집는 용도의 원시 농기구의 모습과 유사하다. 힘이 농기구 耒의 형태의 농기구인 까닭에 경작활동에 필요한 힘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어 氣力을 뜻하는 力으로 인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本義가 원시 농기구 耒인 고문자 ‘力’의 자형에는 경작활동과 관련된 원시 사회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耒의 형태인 單齒耒는 고문자 力의 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耒를 力에서 발전된 형태, 또는 力의 고문자 자형을 원시 농기구 耒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다. 땅 뒤집기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단치되는 雙齒耒로 발전하여, 이것은 耒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끝이 갈라진 모습 모양”의 ‘耒’ 자형에 반영되었다. 耒와 耜는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그 字義가 변화되어 농기구의 총칭 ‘耒耜’로 쓰이게 되었다.

황하 유역 신석기 유적을 중심으로 출토된 탄화된 조의 흔적을 통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원시 곡류 작물 중 하나가 '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당시의 농경문화는 '禾'와 '粟'의 고문자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원래 다 익어 이삭을 드리운 곡류 조의 모습은 禾로, 이삭 껍질이 벗겨진 낱알은 粟로 구분되었다. 이후 재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조는 여러 지역의 대표 농작물로 그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禾의 의미도 변해 곡류 작물의 총칭으로 인식되었고, 粟은 고문자 禾와 稷 대신 조를 대표하는 글자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이것 역시 곡류 작물의 총칭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禾'와 '粟'에는 조를 가장 중요한 농작물로 인식하였던 고대 중국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낱알을 질구질한 후 겨를 날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 '稻'이다. 고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쌀을 식량으로 삼았기 때문에 벼의 낱알을 찢는 모습으로 稻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메벼를 뜻하는 한자 '稻'에는 수확한 벼를 주된 식량자원으로 이용하였던 고대 중국인의 인식과 농경문화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시사회에서 상고시대에 이르기까지 벼는 조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인 곡류작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農' 자형을 통해 산림을 불태워 인위적으로 조성한 농지에서 도구를 사용해 농사를 짓던 당시의 농경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農의 본의가 산림을 개간한 농지에서 원시 농기구를 사용해 경작하는 모습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당시의 과도기적 농경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문해자》에서 "경작하다"라 한 것은 漢代에 이미 보편화된 농경지 중심의 경작활동을 바탕으로 農을 풀이한 것으로, 이후 農은 농민, 농사, 농사짓다 등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화전 등의 원시농경에서 농기구와 농경지 경작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었던 당시의 과도기적 경작활동과 이에 따른 농경문화가 '農'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田과 力으로 구성된 '男'에는 권위가 향상된 부계사회 남성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경작활동이 사회생산력의 중심된 되었던 부계사회의 농경문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원시 사회 말기에서 상고 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개간 경작지는 화전방식의 농경지에서 도랑을 파 경계를 구분하는

구획 농경지로 발전하였는데, 당시의 이런 과도기적 농경문화가 ‘田’에 반영되었다. 부계 사회는 농경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상고시대 남성은 생산 활동의 주체였기 때문에 고문자 자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농경지에서 농기구를 사용해 경작활동에 종사하던 사람”은 이후 남성을 대표하는 지칭 ‘男’이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男을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라 풀이한 것은 부계사회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稷’은 중국 북방 지역의 대표적인 곡물이며 가장 중요한 식량자원이었던 ‘조’의 별칭이다. 이것은 ‘오곡 중 으뜸’이라 할 수 있기에 이후 農官과 곡식 신으로 그 의미가 인신되었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발전된 문명이 농경이었고, 고대 중국은 이것을 기반으로 나라를 발전시켰다. 때문에 국가의 대명사인 ‘社稷’에는 봉건사회 고대 중국의 농경문화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 최덕경, 《中國古代農業史研究》, 서울: 백산서당, 1994.
- 왕닝·시에똥위엔·리우팡, 김은희 옮김, 《《설문해자》와 중국고대문화》, 서울: 학고방, 2010.
- 賀立敏, <甲骨文에 나타난 商代의 農業文化 考察>,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 夏緯瑛, 《夏小正經文校釋》, 農業出版社, 1981.
- 宋兆麟·黎家芳·杜耀西, 《中國原始社會史》, 北京: 文物出版社, 1983.
- 馬非百 注釋, 《鹽鐵論》, 北京: 中華書局, 1984.
- 李根蟠, 《中國古代農業》, 深圳: 天津教育出版社, 1991.
- 陳鼓應 注譯, 《莊子今注今譯》, 北京: 中華書局, 1994.
- 陸賈 撰, 《新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何九盈·胡雙寶·張猛, 《中國漢字文化大觀》,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5.
- 班固 撰, 顏師古 注,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7.

- 李學勤 主編,《十三經注疏(標點本)春秋左傳正義》,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7.
- 臧克和·王平 校訂,《說文解字新訂》,北京:中華書局,2002.
- 劉志成,《文化文字學》,成都:巴蜀書社,2003.
- 趙宗乙,《淮南子譯注》,哈爾濱:黑龍江人民出版社,2004.
- 穀衍奎 編,《漢字源流字典》,北京:華夏出版社,2006.
- 黃壽祺·張善文 撰,《十三經譯注 周易譯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6.
- 黎翔鳳 撰,《管子校注》,北京:中華書局,2006.
- 吳毓江 撰,孫啓治 點校,《墨子校注》,北京:中華書局,2006.
- (清)陳立 撰,吳則虞 點校,《白虎通疏證》,北京:中華書局,2007.
- (清)馬瑞辰,《十三經清人注疏 毛詩傳箋通釋》,北京:中華書局,2008.
- (漢)許慎 撰,(清)段玉裁 注,《說文解字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8.
- 徐中舒 主編,《甲骨文字典》,成都:四川辭書出版社,2016.
- (清)朱駿聲,《說文通訓定聲》,北京:中華書局,2016.
- (清)邵晉涵 撰,《爾雅正義》,北京:中華書局,2017.
- 徐中舒,《農業考古》1期,〈耒耜考〉,1983.
- 暴希明,〈漢字構形中所見上古農耕文化〉,《語文知識》第2期,2008.
- 熊歡,〈古代農業心理文化在漢字中的投射〉,《文學教育》,2015.
- 王平,〈“男”字構件〉,《大眾文藝》,2016.
- <http://www.vividict.com> 《象形字典》
- <http://humanum.arts.cuhk.edu.hk>
- <http://www.gudaishiwen.com/mingju/ju7937.html>

< Abstract >

Agricultural Society of Ancient China as Reflected
on Agriculture-related Chinese Characters

www.kci.go.kr Lee, Inkyung

This study briefly looked at the origin and developing process of China's

agriculture in the first place to understand the circumstances of the primitive agriculture. Then, categorizing them into farming methods, farming tools, crops, the study interpreted the related Chinese characters ‘采’, ‘焚’, ‘力’, ‘耒’, ‘耜’, ‘禾’, ‘粟’, ‘稻’ in linkage with the developing process of agricultural society and sought to look into the agricultural society then using shapes of ancient letters, archeological specimens and literature records. In an attempt to understand agricultural society during the period when primitive society had developed through ancient times, the study also examined ‘農’ ‘男’ ‘稷’ - Chinese characters reflecting the societal circumstances then - using the same materials.

‘采’ reflected the perception of the people then related with picking and collecting, the base of primitive agriculture, while ‘焚’ meaning ‘burn’ might have reflected agricultural primitive society related with cultivation of burned farmland. Shape of ancient letter ‘力’ originally meaning a primitive farming tool 耒 might have reflected the agriculture in the primitive society.

耒 in the shape of the end standing out to the front developed to 耒 in the shape of the end split into both sides in connection with the efficiency of ploughing, making the typical shape of 耒. This tells us that the perception of the people then was reflected on ‘耒’ in the shape of an end-split forked ploughshare.

‘禾’ and ‘粟’ might have reflected agricultural society of ancient China when people considered millet as the most important crop. ‘稻’ reflected perception of ancient Chinese who used the harvested rice as the major food resource as well as the agricultural society and so we can learn that rice was the typical crop along with millet from primitive society through ancient times.

Meanwhile, ‘農’ reflected the transitional cultivation activity at the time when primitive agriculture such as 火田 (burned farmland) developed focused on farming tools and farmland cultivation as well as the related agricultural society. Patriarchal society developed based on agriculture. Men in ancient times were the main principals of production activity and so “people engaged in cultivation using farming tools at farmlands” turned to ‘男’ symbolically referring

to men as revealed from the shape of old letters. Another name of ‘millet’ ‘稷’ was the typical crop representing northern China and could be called the ‘No 1 of five grains’ and thus its meaning was extended to the names of agricultural officials and god of crops. Earliest developed civilization in China wa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ancient China was able to develop the country based thereon. For this reason, ‘社稷’ - a pronoun of the country or state - is considered to have reflected agricultural society in feudal ancient China.

Key Words: Chinese characters, Agricultural society, Primitive society, Ancient times, Burned farmland, Sorted farmland

| | | | | |
|-------------|-------------|-------------|-------------|-------------|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2018. 7. 30 | 2018. 8. 10 | 2018. 8. 10 | 2018. 8. 23 | 2018. 9. 30 |